

국제수정란이식학회의 현황

한 용 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수정란이식학회는 1974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수정란이식 관련 전문가들간에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학회에는 수정란 이식 전문가, 과학자, 교수, 관련 공무원, 가축 사양가, 장비 및 시약 공급자, 학생 등 수정란 이식관련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설립당시 7개국 82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던 학회 회원은 현재 약 50개국에서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학회회원의 구성은 미국이 약 44%, 나머지 나라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약 30여명이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원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전반적인 학회 일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사임 후 추가 1년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세계수정란이식학회의 정기총회 및 학술회의는 매년 1월 첫째나 둘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화요일까지 3일에 걸쳐 이루어지며, Pre- 및 Post-conference가 각각 학회일정 전후로 하루씩 잡혀 있다. 매년 학회의 참석인원은 500~600여명에 이르고, 매년 약 15 연제의 특강과 약 250~300 여편의 초록이 발표되고 있다. 공식 학술지로는 매달 2권씩 출간되는 Theriogenology가 있고, 매년 1월 1호는 학술대회 특강과 초록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학회가 열리는 장소는 각국의 신청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북미, 유럽 그리고 기타 나라의 순서로 3년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상기 학회를 유치할 경우 2006년에 가능하며, 2002년 12월 1일까지 신청서를 학회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학회에서는 소 수정란이식의 지침, 수정란 취급의 위생표준, 수정란과 병원균과의 상호작용, 동결수정란 표식의 표준화 등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년 4회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세계수정란이식학회는 첨단 동물생명공학분야, 특히 포유동물 수정란의 미세조작을 통한 가축의 개량 및 생산성향상에 있어서 기초 연구결과의 정보교류는 물론 첨단 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유일한 국제학회로서 앞으로 이 학회는 더욱 확대 발전할 전망이다.